

정주공동성의 공간적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1)¹⁾

- 산간지역(평창군 미탄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윤원근 * · 이상문 **

* 협성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 ** 협성대학교 도시계획공학과

Spatial Pattern of the Settlement-Communality in Rural Mountain Area

Yun, Won-Keun * · Lee, Sang-Moon **

* Dept. of Community Development, Hyupsung Univ.

** Dept. of Urban Planning & Engineering, Hyupsung Univ.

ABSTRACT

The drastic change of mountain community, which have led existing villages to a size reduction or an extinction, makes this study concentrate on finding out the new community unit as a spatial zone of daily life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he communality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a rural settlement consistency has been focused on the socio-economic aspect till now, neglecting the spatial nature. The settlement-communality(SC) putting a stress on the spatial aspect can be, therefore, shaped as being multi-dimensional, composed of both a horizontally areal coverage on the surface of the residential place and a vertically hierarchial relationship between settlements, by analyzing three elements of communality that are the economic, socio-cultural and spatial activities.

The research site is located administratively in Mitan-Myoun, Pyoungchang-Gun, Gangwon-Do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as a typical mountain community. The results of field survey of which the method is to draw the activity zone from an interview with every village's head and some residents with the prepared questionnaire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y, the SC in almost all villages tended to be weakened or extincted, none the less, the spatial zone of that overally enlarged and got out of natural village unit(hamlet). However the areal coverage on which the SC has an influence reaches up to the alliant domain of a few villages generally congruent with the lowest level administrative district.

Secondly, the economic and social activity pattern in village life has a tendency to be directly linked

with a upper central place, so that has induced the function of a central village in the middle-low settlement hierarchy to be largely shrunked. Not only the conventional residents' access to goods service but also the recent service-delivers' access to residents has gradually formed the vertical communality with direct linkage between the upper and the bottom level settlements

Lastly, the enfeeblement of the SC in the lowest settlement level tends to be supplemented by enlarging the horizontal zone of the SC or especially by strengthening the vertical direct linkage system. The very this point makes the mountain community open to the external world and also makes the spatial unit of community be multi-dimensional just like a cubic.

I. 서론

전통적으로 지역사회학에서 공동체(community)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집합단위이자 구성원의 의사교환망내에서 협동성이나 공동성으로 결속되는 조직체를 의미해 왔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는 일정 구역으로 분절된 공간단위, 즉 영역적 단위로도 이해되어 왔다.¹⁾

따라서 공동체란 크게 보아 사회경제적 의미의 집합성(collectivity)과 공간적 의미의 영역성(territoriality)이 결합된 복합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로 공동체에 대한 접근은 조직구성체내의 사회경제적 상호작용과 그것의 문화적 의미에 치중한 나머지 그것들의 공간화 과정의 실재를 밝히려는 노력은, 공간계획·지리·건축분야에서 단편적으로 취급한 것 이외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

서구 공간학의 역사에서 볼 때,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는 19C말~20C초 근대도시 태동기에 Howard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하여, Perry의 근린주구론, Mata의 선형도시론, Le Courbusier의 고층주거군 등으로 발전되지만, 모두 도시에 국한된 것이었다. 한편 농촌에는 별도의 논의가 전개되는데 농촌계획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 영국의 중심마을(key settlement)론, 독일의 마을재정비(Dorfneuerung)론, 일본의 촌락건설(むらづくり)론 등이 대표적인 커뮤니티계획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산업화의 막급한 여파로 농촌이 해체되는 와중에서도 농촌 커뮤니티의 공간구조 변

화와 정주패턴을 설명하는 논리는 여전히 과거의 독립적 마을커뮤니티론에 기초한 시간착오적인 것이었다.²⁾

그동안 거점이론, 중심지론, 농도통합론 등 농촌공간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론들이 널리 통용되어 왔으나 이는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광역적인 지역계획차원의 이론으로서, 다소 미시적인 커뮤니티차원의 일상 공간활동과는 관련성이 적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농촌공간 재편의 수단으로 도시 커뮤니티에서도 그 시대적·공간적 적합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단지계획기법을 신마을 조성에 적용하는 흐름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³⁾

따라서 이 시대의 농촌 커뮤니티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적 설명력이 높은 동시에 공간계획에 대한 현실 적용력도 확보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정주공간모형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성에 대한 모색에서부터 출발해야 이유를 다음 몇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먼저 특정 정주지에서 개인의 정주활동을 보편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란, 공유된 집합활동과 결합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즉 공동성의 존재형태를 고찰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이다. 둘째, 최근 농촌 공간변화의 축을 이루는 마을해체 현상이란 바로 마을단위 공동성의 와해를 의미하는데, 공동성의 존재형태가 마을이라는 개념성립의 주요 가능자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농촌 공동성의 존재영역이 변화, 새로운 공간단위를 형성함으로써 하위 정주계층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이것이 농촌 정주체계를 변화시

1) Community의 다의적 개념에 대해서는 Poplin(1985, 흥동식·박대식 편역)의 pp.18-41.을 참조하기 바람.

2) 대표적인 것이 독자적 단위마을 중심의 새마을운동(1970년대)과 정부의 취락구조개선사업(내무부, 1963년~현재)을 들 수 있다.

3) 1991년 이후 농림부가 추진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이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취락구조개선사업(내무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내무부, 농진청) 등이 있다.

키는 근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촌락의 공동성 그 자체에 대한 탐색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의 정주공간계획에 대한 적용을 위해 정주체계 내에서의 공동성의 존재형태, 달리 말해 정주공동성의 공간적 질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공간재편의 방향을 유도할 수 있는 처방적 정주모델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산간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필두로 평야, 근교지역의 연구를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역적 차이와 보편적 특성을 밝혀 보기로 한다.

II. 정주공동성 이해의 관점과 접근방법

1. 정주공동성의 개념과 문제 제기

본 연구에서 정주공동성이란 용어는 정주성과 공동성이 결합된 조어로서, 정주라는 접두어를 붙인 이유는 공동성에 대한 그간의 접근이 사회경제적 특성을 밝히는데 주력, 그와 상호관입적 관련을 맺는 공간적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둘을 관련지워 설명하려는 것은, 공동성이란 것이 일정 영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범위가 확장되어 영역과 영역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문제, 곧 정주체계상의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주라는 개념은 어떤 지역을 삶의 터전하여 안착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전통적으로 농촌 정주는 공동적인 생업기반과 일상에서의 공동활동 즉 삶의 공동성을 모체로 하여 왔다. 그래서 정주공동성이란 정주에 필요한 인간 상호간의 집합적 활동들이 일정 영역내 혹은 영역간에 조직화되어 공간적 질서를 형성해가는 일체적 조건이자 그 과정을 의미한다. 마을중심적 전통 사회에서 마을은 커뮤니티의 기본단위였고, 마을형성의 핵심은 바로 공동성의 구축에 있었다. 여기서 공동성은 마을 구성원을 내부적으로 결속, 그들의 활동을 조직하는 사회구성의 원리인 동시에 특정 지점의 장소만들기와 그 형태적 구조를 결정짓는 공간형성의 원리로도 작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농촌공동체의 기본단위였던 마을의 위상과 역할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는 시발한다. 마을구성의 핵심원리로 자리했던 공동성의 존재형태가 급변함으로써, 그 영향권하의 공간구조 또한 재편된다는 점이 문제의 핵

심이다. ‘마을’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듯 ‘무리성’, ‘집단성’ 곧 공동성이 그 존재의 기반이던 것이 산업화 이후 공동성의 제 양태들이 와해됨으로써, 마을이라는 개념 성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 것이다.

최근의 농촌변화를 둘러싼 논의에서, ‘마을공동체의 해체 위기’라고 일컫는 것에는 두가지의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공동성이 해체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 영역성이 산일(散逸)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래서 흔히 마을의 현상적 변화 즉 공동화, 규모 축소, 휴경화 등과 같은 외피적 사실만을 보고 마을의 해체를 논하는 것은 마을 해체론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마을 내부에서의 공동성의 소멸·재구축은, 다른 한편에선 마을 외부와는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음 몇가지 의문을 노정시키고 있다.

첫째, 농촌 정주체계상에서 공동성은 어떤 공간적 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범역과는 어떤 상이점을 가지는가?

둘째, 공동성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면, 이것의 다양한 존재형태들은 정주공간상 어떤 平面的이고 位階的인 秩序로 나타나고 있는가?

2. 정주공동성의 구성요소 및 접근방법

정주공동성을 달리 인간이 특정 장소에 정주하기 위한 집단적인 공유조건이라 해석한다면, 그 조건에는 경제, 사회, 문화, 공간 등의 특질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이를 접근의 편의상 經濟的 共同性, 社會文化的 共同性, 空間的 共同性으로 삼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촌지역에서 경제적 공동성은 주로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로서는 일정 단위의 토지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교환관계를 들 수 있다. 생산요소로서 노동력의 교환에는 품앗이, 날뎌노동의 고용, 농작업 수위탁 등이 있고, 다른 요소인 토지의 교환에는 농지소유, 농지임대차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에는 수요자인 주민의 상품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상품유통경로가 농촌 경제활동의 새로운 분석기준이 될 수 있다.

사회문화적 공동성은 앞의 경제적 공동성을 집단 내부

4) 농촌 정주체계 변화의 원인은 크게 보아 상위 중심도시에 의한 외부적 영향과 공동체 내부의 변화 요인을 들 수 있다.

에 발전시키는 장치인 동시에 그 자체로서 체계유지의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공동의 조직, 문화적 행사, 그리고 조직과 행사를 운영하는 물적 토대인 공동재산의 구성과 활동 정도를 말한다. 공동조직은 경제조직과 사회조직으로 대별 되는데, 전자에는 契, 作日班, 營農團 등이, 후자에는 공식조직인 마을회의(대동계), 부녀회, 노인회 등과 비공식 조직인 상조계, 친목계, 동창회 등이 있다. 바로 이들의 구성력과 활동 정도가 조직의 공동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문화행사에는 공동제(共同祭), 마을놀이, 체육대회, 단체관광 등이 있고, 공동재산은 공동기금과 마을전답 및 임야가 있다.

공간적 공동성은 물적 시설을 매개체로 위의 두가지의 공동성이 유형화(有形化)되는 공유된 장소를 의미하며, 생산 및 생활과 관련하여 주민 공동시설의 존재 및 이용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특정 시설로 구성되어 공동활동의 근거지로 작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마을회관, 노인정, 마을구판장 또는 가게, 상하수도, 쓰레기장 등의 생활공동시설, 동네창고, 농기계창고, 공동건조장, 공동작업장 등의 생산공동시설, 성황당, 정자(동네나무), 놀이터, 운동장 등의 문화공동시설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정주공동성에 대한 접근은, 이것의 존재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지표상에서는 그 형태가 어떻게 드러

나는가를 파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구성요소별 정주공동성이 마을단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게 되고, 만약 그 중 일부의 존재 범역이 마을단위를 벗어나 확대되고 있다면, 2차적으로는 어디까지 그 공간 영역이 확대 되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2차적인 작업은 기초 정주단위를 벗어난 정주체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근 마을들간의 평면적(수평적) 범역을 분석하는 것과 인근 중심지와와의 위계적(수직적) 관계에서 분석하는 것으로 양별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 분석은 정주공동성의 구성요소별 존재 유무 조사와 그것의 권역 그리기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개의 취락군이 모여있는 면단위로 확정하였다. 이는 일개 단위마을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과 마을간, 마을과 상위 중심지간에 전개되는 정주공동성의 공간질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산간지역을 우선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마을들이 급격한 해체의 소용돌이를 지나쳐 오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공동성의 형태들이 잔존해 있고, 이런 연유로 그것들의 공간화된 결과물을 가장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를 위해 평균해발이 400m, 임야율이 86%, 전체 경지면적중 전율이 94.8%, 자연부락당 평균가구수가 102호로 산간농촌의 특성⁵⁾이 잘 드러

<표 1> 농촌 정주공동성의 구성 요소와 지표

정주공동성의 구분		정주공동성의 구성 요소	
경제적 공동성	생산요소의 교환관계	① 노동력 교환관계 토지 교환관계	품앗이, 날뽕고용, 농작업 수위탁 농지 소유관계, 농지임대차
	상품서비스의 접근	② 구매자 접근 이동서비스	수요자이동: 상품구매권 공급자이동:차량판매권, 주문배달권
사회문화적 공동성	조직·행사·공동재산의 구성파 활동 정도	③ 공동조직	(경제조직) 작목반, 영농단, 금고 (사회조직) -공식조직: 마을회의, 부녀회, 노인회 -비공식조직: 상조계, 친목계, 동창회
		④ 문화행사	공동제의, 마을놀이, 체육대회, 단체관광
		⑤ 공동재산	공동기금, 마을전답, 마을임야
공간적 공동성	공동시설의 존재와 이용 상태	⑥ 생활공동공간	마을회관, 노인정, 구판장, 상하수도, 쓰레기장
		⑦ 생산공동공간	동네창고, 공동작업장, 농기계창고, 공동건조장
		⑧ 문화공동공간	성황당, 정자, 놀이터, 공동쉼터

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이 선정되었다.

면지역 전체인 13개 행정리, 35개 자연부락에 대한 4차에 걸친 방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마을이장 및 일부 주민에 대한 면담조사와 시설배치 및 이용도에 대한 공간조사가 실시되었고, 관련 자료수집을 위한 행정조사(군청, 면사무소, 농촌지도소 방문조사)도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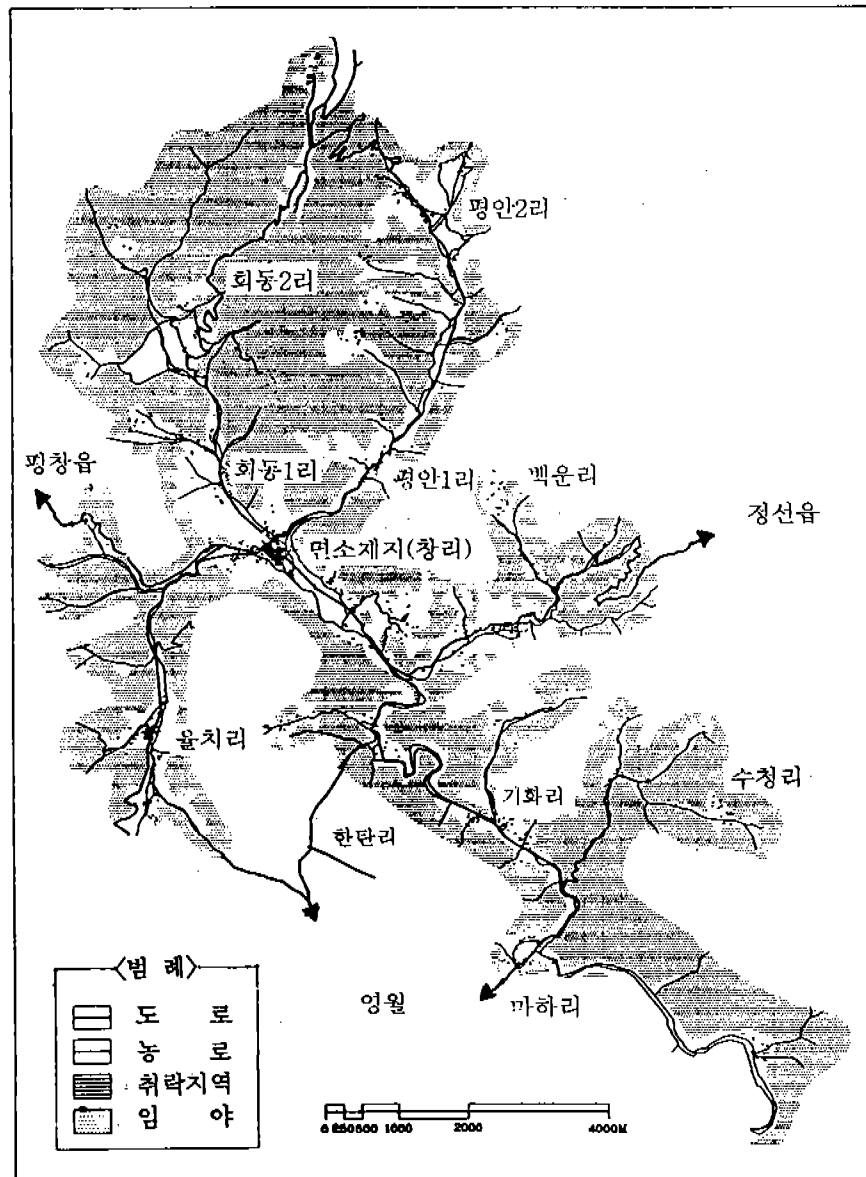
Ⅲ. 산촌 정주공동성에 대한 조사 결과

1. 조사지역의 특성

1) 지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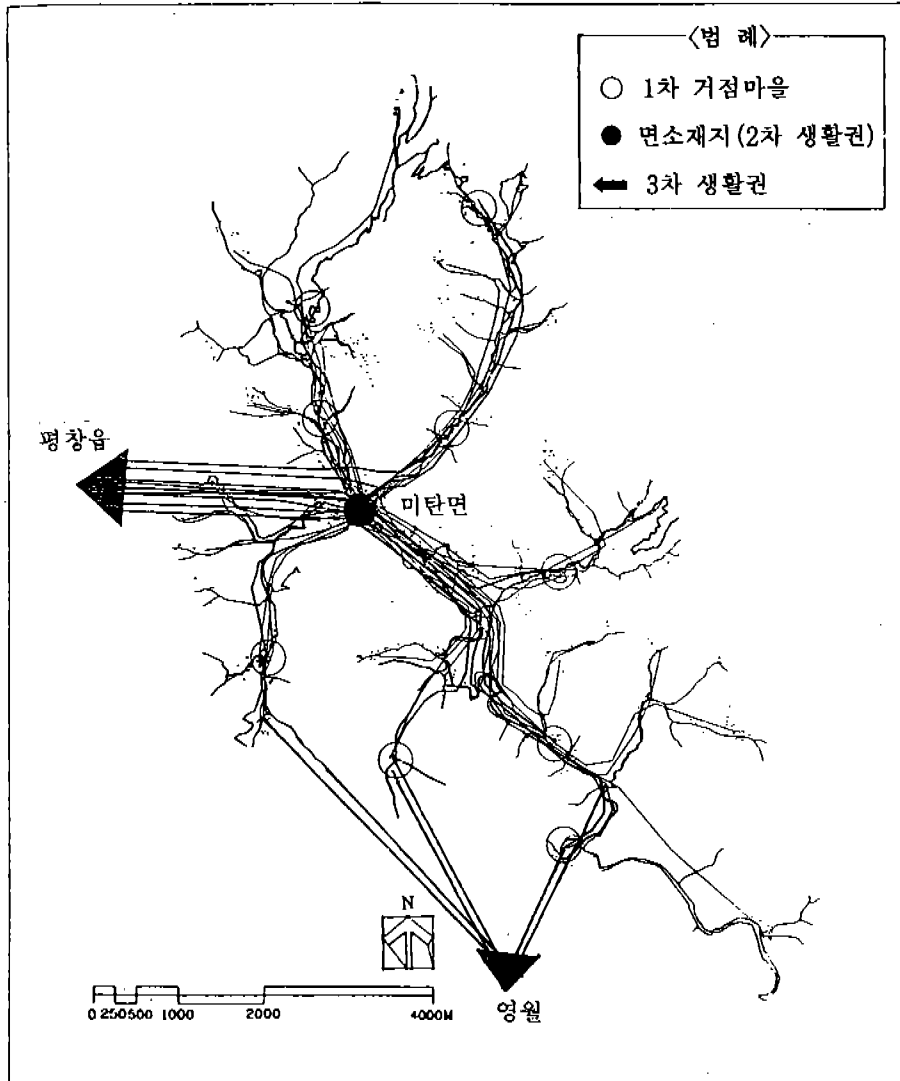
미탄면의 촌락들은 해발 최저 270m(마하리)에서 최고 560m(회동2리)까지 290m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입지하는데,

<그림 1> 평창군 미탄면의 마을 분포도



5) 일반적으로 지리학에서는 입야율 70-75% 이상, 전율 30-40% 이상, 평균 해발 300m 이상을 기준으로 III촌으로 분류한다.

〈그림 2〉 미탄면의 정주체계 및 생활권 구성도



대부분의 마을은 해발 350m에서 450m 사이에 입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형이 가파르면서 지대가 높은 山地村落으로서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대부분의 자연부락들은 좁은 골짜기의 斜面에 주택이 성기게 분포한 분산형 촌락으로 발달해 있다. 통계자료상 행정리의 수는 13개리인데 비해 자연부락의 수는 56개로서 한개 리당 평균 4.3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개 자연부락도 일정지역에 집중한 단일 촌락이 아니고 전작지 위에 7~10호의 주택이 독자 지명을 가진 하나의 공간분절(小村)을 형성하면서, 보통 3-4개의 분절들이 하나의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2) 인구적 특성

사례지역 인구변화의 큰 특징으로, 먼저 인구 과소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절대적 인구감소에 따른 인한 마을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고, 다음은 과거 이 지역에 석탄광이 있던 관계로 1980년대 초까지 비농업인구비의 우위현상과 최근 들어 농가수의 급감으로 인한(1973년 농가수 1,049호에서 1993년 328호로 70% 감소) 비농가울의 상대적 증가를 들 수 있다(동 기간중 비농가수는 18% 감소에 그침).

또 다른 특징으로 인구감소 추세에서 마을별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 소재지 마을, 소재지 인근마을, 원격지 배후마을로 인구 감소율에 있어 삼분된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표 2〉 마을별 지리 및 일반 특성

마을명	표고(m)	토지이용			일반현황		
		답면적(ha)	전면적(ha)	전율(%)	구분	1974년	1994년
창 1리	310	8.0	32.9	80.4	행정리수	12	13
창 2리	320	10.0	45.6	82.0			
창 3리	320	8.0	43.6	84.5	자연부락수	35	56
울치리	400	-	53.0	100.0			
회동1리	390	1.0	69.4	98.6	인구(인)	7,060	2,778
회동2리	560	-	50.5	100.0			
평안1리	350	-	44.9	100.0	총가구수(호)	1,230	796
평안2리	530	-	16.2	100.0			
백운리	500	1.0	36.3	97.3	비농가수(호)	298	244
한탄리	450	-	75.1	100.0			
기화리	280	-	27.1	100.0	인구밀도 (인/km ²)	64.7	25.4
마하리	270	-	15.1	100.0			
수청리	550	-	-	-	자연부락당 평균가구수	35.1	14.2
계		28.0	510.7	94.8			

자료: 평창군 통계연보, 1975-1995

〈표 3〉 행정리별 인구 및 가구의 변화, 1975-1996

행정리명	인구수(명)		인구증감율 (%)	가구수(호)		가구증감율 (%)	비농가율(1996)(%)
	1974년	1994년		1974년	1994년		
창 1리	905	541	-40.2	172	155	-9.9	40
창 2리	403	190	-52.9	69	45	-34.8	6
창 3리	1115	605	-45.7	197	176	-10.7	20
울치리	634	269	-57.6	112	76	-32.1	32
회동1리	703	264	-62.5	118	78	-33.9	7
회동2리	572	152	-73.4	95	42	-52.6	5
평안1리	460	175	-62.0	77	51	-33.8	5
평안2리	277	80	-71.1	40	27	-32.5	13
백운리	671	138	-79.4	108	42	-61.1	8
한탄리	490	119	-75.7	81	36	-55.6	0
기화리	336	128	-61.9	60	36	-40.0	10
마하리	264	94	-64.4	47	26	-44.7	4
수청리	230	23	-90.0	45	6	-86.7	0
계	7,060	2,778	-60.7	1,230	796	-35.3	

주 1) 인구 및 가구증감율은 1974-1994년 기간의 기하평균임

2) 인구, 가구, 농가, 비농가수는 실제 조사결과임

3) 비농가수에는 은퇴노인 가구수를 포함한 것임

면소재지로부터 원격지이면서 고지대 마을일수록 인구감소
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원격지라 할
수 있는 수청리의 경우 인구가 1974년 230명에서 1994년 23
명으로 급감하여 1994년부터는 행정리가 소멸, 마하리로 통

합되었다.

3) 산업적 특성

농업적 특성을 먼저 살펴 보면, 미탄면의 총경지면적

5387ha 중 밭면적이 5107 ha(94.7%)를 차지, 전작위주의 농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은 면소재지 인근(창1·2·3리)에 일부 분포되어 있을 뿐이다. 밭작물은 옥수수, 콩, 팥, 채소, 고추, 담배 등인데, 채소(32%), 고추(31%), 옥수수(24%)의 순으로 생산되고, 나머지 콩, 담배, 팥이 12.8%를 차지한다. 이를 마을별로 보면 채소+고추+옥수수를 고루 심는 마을이 9개, 채소+고추만을 심는 마을은 2개, 옥수수+고추를 심는 마을은 1개리이다.

1980년과 비교하여 작물별 생산추이를 볼 때 수익성이 낮고 수노동 의존적인 쌀, 옥수수, 콩, 담배 등의 작부면적이 줄어 들고 대신 환금작물인 고랭지 채소류와 고추는 그 면적이 늘고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보면, 석탄광업소가 계속 감소하여 1981년 업체수가 총 7개소 였던 것이 1994년 현재 전무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석탄광업소는 1974년부터 개소되어 1984년에는 종업원수가 440명으로 절정을 이루었으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석탄산업 사양으로 1993년에는 그 수가 41명으로 감소되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광업 활황으로 서비스업, 유기업이 성행했으나 1995-97년 조사시에는 상업서비스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있었다. 다만 1980년대부터 청정계곡수를 이용한 송어양식장이 골마다 들어서 현재 8개소가 있다.

2. 定住共同性の 조사 결과

1) 基礎定住單位(마을단위)에서의 공동성의 존재형태

(1) 경제적 공동성

농업생산요소의 교환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수로서 품앗이, 노동력 고용, 농지임대차를 권역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품앗이 교환권의 공간적 확산이 주목된다. 자연부락단위의 품앗이권에서 벗어나 인근 4~5개 자연부락의 연합 권역으로 확대되는데, 다만 대부분 지형상 골의 능선으로 둘러싼 행정리 경계를 넘지는 않는다.

둘째, 마을내부 노동력 고용은 거의 없고, 타지 날품고용이 늘어난다. 과거에는 생활권에 따라 타지에서 일부 노동력이 고용되던 것이 노동력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고용권이 확산, 면소재지의 잉여노동력은 물론이고 군소재지(평창읍)와 인근 군의 잉여노동력(영월·정선 탄광지)마저 흡수함으로써 이제 생활권과는 무관한 노동고용권이 형성되었다.

셋째, 인구급감으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마을은 품앗이가 없어지고 대신 외지에서의 날품노동 고용이 증가한다.

〈표 4〉 마을별 경지 및 농작물 식부면적 변화, 1980-1995.

단위: ha

행정리	경지면적		쌀		옥수수		콩		팥		채소		고추		담배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창1리	40.9	49.0	8.0	15.0	9.7	11.0	1.8	2.0	1.0	2.0	9.8	8.0	10.6	10.0	-	1.0
창2리	55.6	70.0	10.0	20.0	9.5	11.0	3.4	5.0	3.4	4.0	6.0	5.0	13.3	12.0	10.0	13.0
창3리	51.6	58.0	8.0	14.0	10.3	10.0	10.0	11.0	0.5	1.0	12.2	11.0	9.6	9.0	1.0	2.0
울치리	53.0	53.0	-	-	3.0	5.0	-	2.0	-	1.0	11.6	10.0	38.4	35.0	-	-
회동1리	70.4	71.0	1.0	1.0	13.7	15.0	1.8	3.0	1.7	3.0	29.6	27.0	19.6	18.0	3.0	4.0
회동2리	50.5	54.0	-	-	20.0	23.0	4.0	5.0	1.7	2.0	16.3	15.0	7.5	7.0	1.0	2.0
평안1리	44.9	44.0	-	-	11.7	12.0	4.0	5.0	2.4	3.0	16.6	15.0	10.2	9.0	-	-
평안2리	16.2	22.0	-	-	-	5.0	-	2.0	-	1.0	7.5	7.0	8.7	7.0	-	-
백운리	37.3	43.0	1.0	2.0	15.6	18.0	0.7	1.0	-	1.0	10.8	10.0	9.2	8.0	1.0	3.0
한탄리	75.1	70.0	-	-	11.6	11.0	6.7	7.0	0.3	2.0	37.0	32.0	19.0	15.0	0.5	2.0
기화리	27.1	28.0	-	-	11.7	13.0	0.8	1.0	0.6	2.0	7.0	6.0	7.0	6.0	-	-
마하리	15.1	18.0	-	-	5.7	7.0	2.7	1.0	1.7	3.0	-	2.0	5.0	5.0	-	-
수청리	-	8.0	-	-	-	5.0	-	1.0	-	-	-	-	-	2.0	-	-
계	538.7	588.0	28.0	52.0	122.5	147.0	35.9	46.0	3.3	25.0	164.4	148.0	158.1	143.0	16.5	27.0

자료: 평창군 미탄면사무소(산업계)

5개 마을 정도에서 조직이 유지되고, 행정리단위 공식조직인 마을회의, 부녀회 등은 모든 마을에서 유명무실화된 상태이다. 아울러 자연부락단위로 이루어지던 성황제, 산신제 등의 공동제외는 7개 마을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율놀이와 같은 마을놀이는 3개 마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마을기금은 4개, 공동전담은 3개 마을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마을내부에 존재하던 기존의 공동조직, 문화행사, 공동재산 등이 소멸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영농형태의 변화로 작목반, 유기농회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조직이 출현하고 그 조직구성원이 여러개의 마을에 걸치는 현상이 발견된다. 구성권이 확대되는 경향은 사회조직과 문화행사에도 찾을 수 있다. 친목계는 노소, 계층의 구분이 없어지고, 경조사는 공식적인 마을회의 소집으로 대체되는 등 자연부락을 벗어난 행정리차원의 권역으로 확대되며, 면전체에 걸치는 이장계나 동감계도 존재한다. 문화행사로서 마을놀이가 거의 소멸되면서 대신 단체관광이나 마을연합의 초등학교 체육대회나 면·군단위 행정 주도 체육대회로 전환되었다. 산신제의 경우 산간지역의 특성상 타 문화행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이 유지되는 편인데, 그것도 1980년대 초까지는 15~20호 정도의 자연부락단위로 유지되던 것이 성원 부족으로 자연부락이 연합

된 행정리단위로 확대되었다.

(3) 공간적 공동성

1970년대 새마을운동때 조성된 마을회관, 구관장 등이 계속 유지되는 마을은 3-4군데에 불과하고 대부분 방치되거나 소멸되었다. 생활의 구심점으로 존재하던 마을회관이나 구관장(동네가게)이 이용자 감소, 생활양식의 개인화, 중심지와외의 교통접근성 증대 등의 영향으로 폐관되거나 사라지는 상황이다. 동네창고, 공동작업장(동네마당), 공동건조장과 같은 생산공동공간은 개인위주 규모화 영농으로 발전하면서 그 이용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창고가 있는 마을은 2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향화됐거나 소멸되었다. 과거 작업장이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던 동네마당은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아적장으로 쓰이고 있다. 공동건조장도 개인건조장이 들어서면서 그 기능이 완전 상실된 상태이다. 문화공간도 이용이 저조하여 성황당은 6개 마을에서 형식을 유지하고 있고 정자목이 있는 마을은 3군데에 불과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처럼 제반 공동공간의 기능이 소멸되는 와중에서 마을진입로와 안길에 대한 공간정비가 전체 마을공간구조의 유일한 변화라는 점이다. 마을 주거환경

<그림 4> 마을 공동공간의 존재형태, 1996

마을명	생활 공동공간					생산 공동공간			문화 공동공간	
	동네회관	동네가게	노인정	진입로	안길	동네창고	공동작업장	공동건조장	성황당	정자목
창1리	×	○	×	○	○	×	×	×	×	×
창2리	○	○	○	○	○	○	△	○	○	×
창3리	×	○	×	○	○	×	×	×	×	×
율치리	○	×	×	△	△	×	×	×	×	○
회동1리	△	○	○	○	△	△	△	×	×	×
회동2리	×	×	×	○	△	△	△	×	×	×
평안1리	△	○	×	○	△	△	×	×	○	×
평안2리	×	×	×	○	△	○	△	×	○	○
백운리	△	×	×	△	△	○	×	○	○	○
한탄리	×	×	×	○	×	×	○	×	○	×
기화리	△	×	×	○	×	×	×	×	○	×
마하리	×	○	×	△	×	×	×	×	×	×
수청리	×	×	×	×	×	×	×	×	×	×

주: 1. ○ 존재 혹은 정비, △ 방치 혹은 부분 정비, × 소멸·없음 혹은 미정비

2. 평안2리, 백운리의 간이집하장은 동네창고에 포함시킴.

3. 성황당은 백운리에 4개소, 한탄리에 3개소 정자목은 백운리에 4개소가 존재함.

참고: 간이상수도는 골짜기별로 면전체 23개소 설치, 모든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고, 소재지(창 1, 2, 3리)에는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었음

이 고스란히 노후화되는 와중에서 거의 모든 마을에서 진 입로를, 9개 마을에서 안길을 확포장한 것이다. 그리고 진입 로는 여러개의 마을을 선으로 연결시키면서 주민 생활권을 미탄면소재지와 직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定住單位間 공동성의 존재형태

(1) 수평적 정주체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경제, 사회문화, 시설이용의 공동성이 기초정 주단위(단위마을)에서는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 러나 다른 한편에선 그것의 공간상 분포는 오히려 수개의 자연부락들이 연합된 확대된 권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목 격했다. 그렇다면 공동성이 존재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확대 되고 있는가? 공동성이 일정 골(谷)로 에워싸여, 즉 일반적 으로 행정리 경계가 지나가는 능선으로 위요되어 자연부락 들이 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면, 산간지역에서는 행정부락 (행정리)이 촌락공동체의 새로운 단위일수도 있다. 과연 마 을간 공동성은 행정부락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가?

주민의 일부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행정부락간에 공동성 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특정 작목반, 상조계, 친목계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부락간에 수

평적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때의 공동성은 권역내 전체 구성원과 관련된 보편적 경향이 아 니라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행정리간 공동성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행정부락들간에 전일적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정주체계상 최 하위인 자연부락간의 공동성은 일반화 시킬수 있지만 상위 행정부락간의 공동성은 일반화 시킬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웃한 행정리간에 농업노동력 교환관계는 극히 제한되어 나타나고, 대부분 면·군소재지나 인근 영월, 정 선군의 광산촌 잉여노동력이 충당되고 있다. 농지 임대차의 경우도 행정리간에 일부 농가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 로 면소재지 주민이 인근 마을의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마을간의 수평적 공동성은 강한 결합력을 나타 내지 못한 채 상하 정주계층간의 수직적 공동성이 보다 강 한 결합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수직적 정주체계의 관점에서.

경제 공동성의 구성요소중 농업노동의 고용권은 앞서 언급한 대로 미탄면소재지와 평창읍 그리고 인근 영월·정 선군이 잉여 노동력의 풀(pool)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 중

<그림 5> 정주단위간 수평적 공동성, 1996

행정리	경제적 공동성		사회적 공동성		공동 공간	
	임대차	노동고용	작목반	계	초등학교권	상수도
창1리 (1)	소 재 지	▶	1	1	1	1
창2리 (2)			2	2	2	2
창3리 (3)			3	3	3	3
올치리 (4)			4	4	4	4
회동1리 (5)			5	5	5	5
회동2리 (6)			6	6	6	6
평안1리 (7)			7	7	7	7
평안2리 (8)			8	8	8	8
백운리 (9)			9	9	9	9
한탄리 (10)			10	10	10	10
기화리 (11)			11	11	11	11
마하리 (12)			12	12	12	12
수정리 (13)			13	13	13	13
영월 (14)	외 지	▶	14	14	14	14
평창 정선(15)			15	15	15	15

주: ◀ 초등학교 소재 마을. ▶ 노동 공급지. 외지는 영월, 정선군을 나타냄

심지에서 각 마을로 바로 날품노동이 공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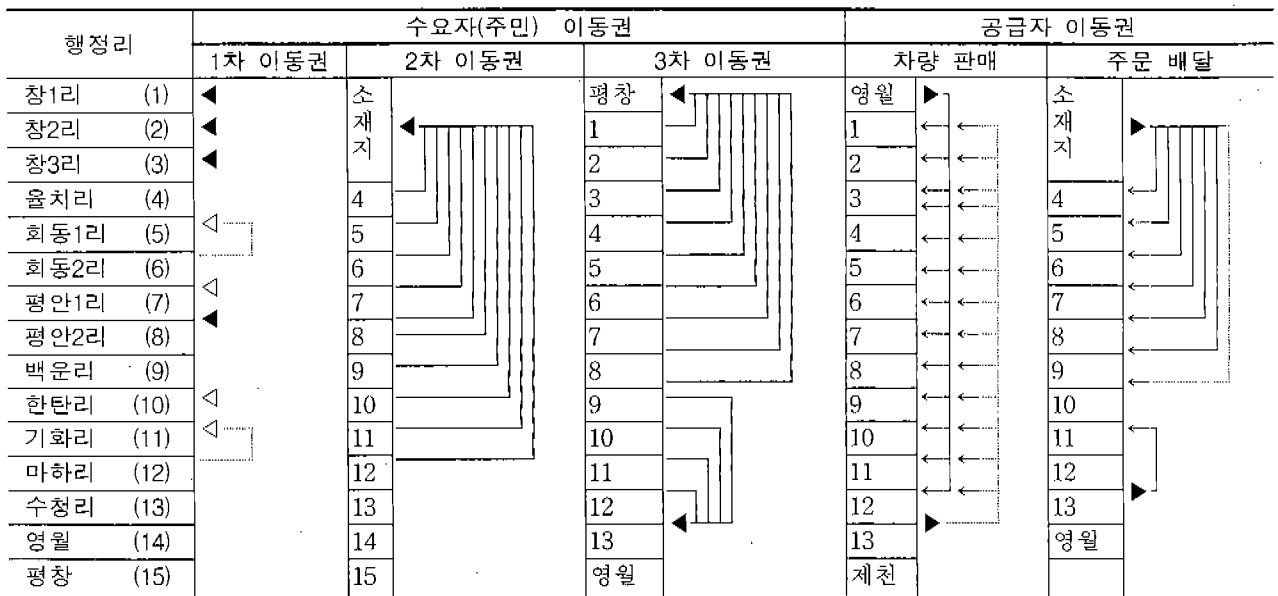
한편 상품구매를 위한 이동권은 산간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고지대 골짜기에 형성된 협로들이 가장 저지대에 속한 면소재지를 향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패턴도 자연스레 면소재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인근 중심지와의 광역 교통체계의 구축이 이동권의 광역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⁶⁾

주민이동권을 수직화된 취락체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3단계화되어 나타난다. 本洞마을⁷⁾의 구관장이나 소규모 가게를 중심으로 배후 자연부락이 연결되는 1차 이동권(거점마을권), 면소재지가 일상 생활필수품 구입의 거점이 되는 2차 이동권(미탄면소재지권), 중대형 및 고품질의 상품서비스를 찾아가는 광역 3차 이동권(평창읍권, 영월읍권)이 그것이다. 3차권인 평창권⁸⁾과 영월권⁹⁾은 주로 1990년대 들어와 교통발달로 형성된 것으로 이 지역 주민의 활동권을 양분시키고 있다.

이동권 변화에서 특이 사항은 인구유출에 따른 규모의 경제 상실로 1980년대 중반이후 본동마을의 가게 판매가 부진하여 1차권이 대폭 위축된 반면, 교통접근성 증대에 힘입어 일상 구매이동이 3차권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동기간에 2차 중심지의 판매기능도 3차 중심지의 동일 기능과 경합, 비교 열세에 처하면서 과거에 비해 위축되었다. 이는 미탄면의 定期市인 5일장세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활발했으나 교통여건이 개선된 1989년을 기점으로 평창읍과 영월읍의 상설시장에 구매력이 흡수, 장세가 크게 위축된 것에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동권(mobile service area)을 살펴 보면 차량 판매권과 주문배달권이 있는데,¹⁰⁾ 양자 공히 면소재지, 영월, 제천 등과 같은 중심지에서 각 마을로 직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주체계상 불매상층과 최하층의 정주계층이 상호 직결된 수직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6〉 정주단위간 수직적 공동성, 1996



주: ◀▶ 거점기능이 강함, ◁▷ 거점기능이 약함, — 강한 결합력, - - - 약한 결합력

6) 이 지역에는 1989년에 평창-소재지-정선간 42번 국도와 영월-소재지간 지방도가 소통되었다. 특히 평창읍과 미탄면을 가로 막고 동행에 큰 불편을 초래했던 맷든계에 터널이 건설되면서 주민 생활권이 평창권으로 흡수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7) 본동(本洞)이란 행정리내의 여러 자연부락들 중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하면서, 마을 규모도 50~100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소규모 상점이나 마을회관, 장고 등이 입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서 행정본동으로 지칭된다.

8) 평창 군내버스망인 '평창←소재지→회동리'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된다.

9) 영월권은 영월 군내버스망인 '영월읍←한탄리→기화리→마하리' 노선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IV. 종합 및 결론

전통적으로 경제적 공동성의 존재권역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는 농업노동력의 교환권을 나타내는 두레권과 품앗이권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두레권이 농촌 근대화 초기(1960년대)에 소멸된 것을 생각한다면, 현재는 품앗이권만이 유일한 기준일 뿐이다. 그리고 노동력 고용권은 품앗이가 약화되면서 그것에 대체해서 나타나는, 공동성의 약화를 간접 설명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지임대차도 인구감소에 따라 농업생산에서의 공동체 구성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간접 기준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공동성의 공간범역은 품앗이권을 대표적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노동력고용이나 농지임대차 등은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노동력 교환권에 기초한 경제적 공동성의 존재권역을 개념화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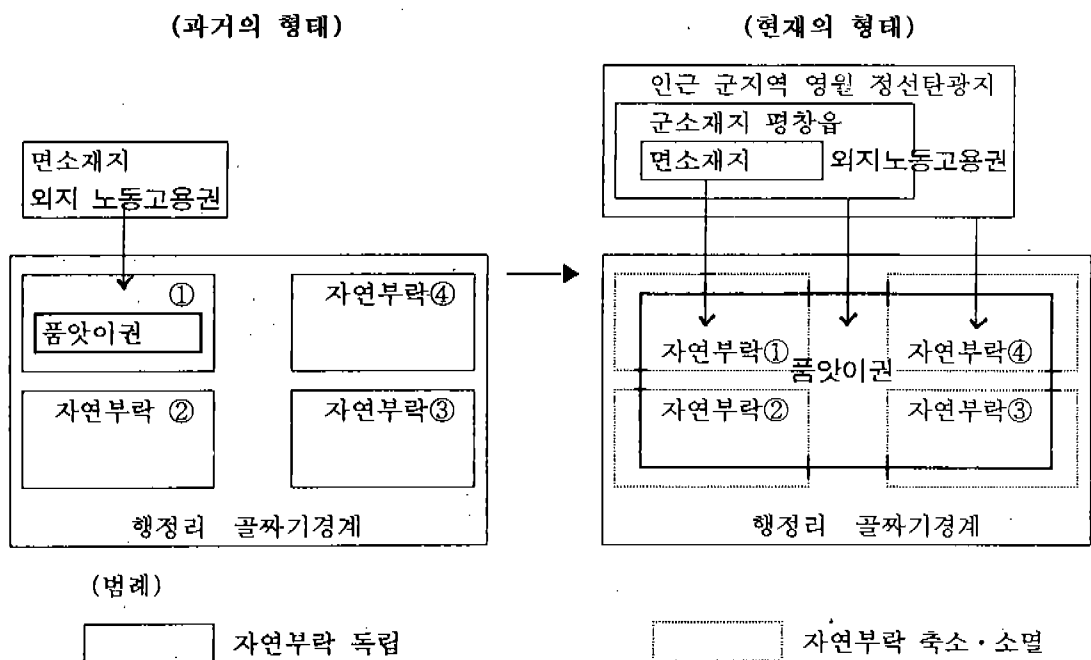
사회적 공동성의 공간범역은 공동조직권의 측면에서 작목반·경조사계·친목계, 문화행사권에서 공동제의, 공동제산으로는 마을기금 및 전답을 대표기준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간적 공동성은 생활공동공간과 생산공동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화공동공간은 모든 마을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므로 성격상 생활공동공간에 포함시켜 그 범역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공간 공동성은 경제 공동성과는 달리 그 범역 파악에 있어 어느 한 기준만을 적용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이 양자는 개별 기준 각각에 대해서 공간범위를 파악 할 수 밖에 없다.

이상 여러 형태의 공동성을 지표상에 펼쳐진 평면적(수평적) 범역(spatial coverage)에 따라 그 형태를 구분해 보면 ①소멸형, ②일부 농가연합형, ③자연부락 독립형, ④자연부락 연합형, ⑤광역단위 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례지역의 조사결과 공동성의 영향권은 전반적으로 수개의 자연부락이 연합된 범위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통상 행정리의 경계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자연지형상 한 골짜기 내부가 일정 단위경역을 이루는 형국이다. 그런데 공동성은 이처럼 평면적인 단위구역내에서 폐쇄적인 국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대해서 개방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살핀 바 대로 정주위계(settlement hierarchy)의 관점에서 기초정주단위와 상층의 정주지가 직결된 수직화된 공동성이 구축됨으로써 이제 입체화된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그림 7> 노동력 교환권의 변화 개념도



〈표 6〉 공동성의 존재형태와 그 범역의 유형

공동성의 형태	경제적 공동성	사회문화적 공동성					공간적 공동성	
		작목반	경조사계	친목계	공동제	마을재산	생활공동 공간	생산공동 공간
소멸형	울치 한탄 수청	수청	수청 마하	울치 평안2 한탄 수청 회동2	창1 창3 울치 수청	창1 창3 회동2 평안1 평안2 수청	회동2 울치 백운 한탄 기화 수청	울치 회동2 평안1 기화 마하 수청
일부 농가연합형	창1 창2 창3 평안1			창1 창2 창3 회동1 평안1 백운 기화 마하				
자연부락 독립형	회동1	-			기화	백운		
자연부락 연합형	회동2 백운 기화 마하 평안2	평안2 백운 한탄 마하 회동1 회동 2	울치 회동1 회동2 평안1 평안2 백운 한탄 기화		창2 회동1 회동2 평안1 평안2 백운 한탄 마하	창2 울치 한탄 기화 마하	창1 창2 창3 회동1 평안1 평안2 마하	창2 회동1 평안2 백운
광역단위 통합형		창1 창2 창3 평안1	창1 창2 창3					

이는 농촌공동체의 공간영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주계획분야에는 새로운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기존 단위마을중심의 농촌정비구역 설정에서 탈피, 보다 확대되고 입체화된 정비구역 대

안을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다. “산간촌락의 공간정비구역은 골짜기내의 수개의 자연부락을 통합하여 설정할 것”, “산촌정비는 단위마을과 소재지 취락정비구역을 연계하여 추진할 것.” 이것이 바로 농촌계획의 새로운 모토인 것이다.

參 考 文 獻

1. 정진원, “공동체 이론과 그 지리학적 해석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14호, 1987년 12월.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사회구조의 장기변화와 발전』, 1-15권. 1985~1996.
3. 김희승, “촌락 공동체의 잔존형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4. 신용하, 『공동체 이론』, 문학과 지성사, 1987.
5. 유병림 외, “정주공간 구성을 위한 커뮤니티설계 모형 연구”, 『농촌계획』, 한국농촌계획학회지, Vol. 2 No. 2, 1996.
6. 윤원근·이상문, “정주계층간 사회경제 및 공간관계 변화에 대응한 농촌 공간정책의 방향모색”,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지, 제5집, 1995.
7. Greene, Sherwin(1992), Cityshape: Communicating and Evaluating Community Design,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 2:177-189.
8. Lozano, Eduardo E(1990), Community Design and the Culture of C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23.
9. Poplin, Dennis E.,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지역사회학』(홍동식 박대식 편역, 1985), 경문사, pp.18-41.
10. Hall, Peter, Urban and Regional Planning, George Allen & Unwin (Publishers) Ltd, 1982.